

#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리는 탄원의 글

탄원인 곽춘규 (010-3737-7004)

내 하나님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아 5장 19절 말씀)

지혜로우신 문재인 대통령님!  
코로나 펜데믹으로 전 세계가 아우성치는데 놀라운 인내와 결단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워드 코로나의 시기로 접어들면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되며,  
이제 저의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려도 되겠다 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법개혁을 지나 사법변혁의 목표를 가지고 20년 째 삶을 투입하고 있는  
한 사법 시민운동가입니다.

이렇게 일생의 목표가 사법변혁으로 매진하게 된 것은 한 사건을 풀어가면서  
판사 검사들의 사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을 내버려 두면 결국 나라에 크나 큰 패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  
습니다.

저의 사건은

참여정부 시절에 추적60분을 통하여 해결의 지름길을 찾게 되었고  
판검사의 계획된 청탁사건 마수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매년 10월 19일이 되면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나 사법변혁에 대하여 정부에서 깊이 관여 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십여 년간 저를 극심하게 괴롭히고 생계수단까지 황폐하게 피해를 입혀온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음이온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은 이명박 정부를 지나 박근혜 정부, 그리고 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 장장 2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가 사는 동네, 제 사업장이 있는 한 구역은 거대한 영화 세트장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감시자 정보원 검찰 프락치, 사법 프락치 등이 아주 양민처럼 한 동네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전부터 살던 사람들은 법조 사조직의 공작으로 거의 반프락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 2021년 들어서면서 몇몇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교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사건인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은 참여정부에서 반을 은폐한 사건입니다. 물론 피해를 주는 제품은 막고 규제를 하였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권력과 사법권을 이용하여 강제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후 정치 이념이 다른 정부에서는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검사와 판사들의 사적 조직인 법조 사조직이 이 사건을 배후에서 막고 있었고, 저는 이 사건과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저의 부족한 능력을 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우파에 기생하며 사법농단을 일삼고 있는 법조 사조직에 대하여 대통령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은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비릿한 냄새(오존)를 국민의 대다수가 음이온(무색무취)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고, 이는 제조자와 일부 판매자들이 비릿한 냄새(오존)가 인체에 좋은 음이온이라고 속이며 광고하고 판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에 근무했고 , 또 직접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잘못된 정보와 피해사실에 대해서 고객과 일반 국민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물론 정부기관에 당연히 신고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등

하지만, 이들은 신고한 사실은 은폐하고 저를 형사 처벌 받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와 판사들이 직접 개입하여 저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고, 개인 문제도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치명적인 패악을 끼치는 국민생명에 직결된

문제와 사건임에도 이들은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움 없이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저는 그렇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에서 나중에 추적60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진실을 밝혀 주어서 손해배상 하라는 민사소송은 막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강원도 봉평에서 일어난 사륜오토바이 사건입니다.

이 법조 사조직은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자 추적60분 방송된 이후 4개월 만에 오토바이 총격사건을 일으킵니다.

피격을 당한 생부 아버지의 사륜 오토바이 사건인데

여기서 판사와 검사들이 음주한 약점을 잡고는 법조 사조직이

형사와 민사소송에 달려들어 벌금처벌과 재산을 약탈한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4륜 오토바이 사건의 실체>**는 음주를 했다는 약점을 잡아 가해자 피해자를 바꾸고 일련의 판사와 검사들이 계획적으로 재판에 지게 하여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한 검사(주민철)는 이 사건을 기각시켜놓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이 국가의 기관이랄 수 있는 검사와 판사들이 수십 명이 공모를 하듯이 작당하였고, 뻔한 거짓말은 인정해주고 분명한 증거는 기각하는 수법으로 결국 5년 만에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렇게 또 10년이 지나가고 2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중에 공수처가 설립되어서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억울한 사건들이 풀려서 자유로운 민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사건 모두 검사와 판사들이 직접 개입하여 처리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도 저의 매장 주위에서 한 동네를 영화 세트장을 만들며 민주 시민의 기본적 삶의 권리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문재인 대통령님

시간이 오래되고 복잡한 사건 같지만,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한 사건들입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이 제가 제출한 서류가 아니라 재판중의 공판 기록과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불법사조직의 범행으로 사법부의 소관 같지만 행정부의 수반이신 대통령님께서 공정한 수사를 독려해 주시면 의외로 쉽게 모든 사건이 풀려 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련의 불법사조직 법조카르텔에 관계된 검사들 몇몇이 요소요소에서 사건을 기각하여 무마시키면서 불법적 청탁을 주고받음으로 연계조직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백방준 검사를 보겠습니다.

백검사는 2003년에 이미 약식기소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데 똑같은 사실로 또 기소하여 병합처리 받게 하고, 벌금300에 약식기소 된 사건이라 제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백검사의 불법적 이중 기소로 병합 처리되어 벌금 300의 재판이 징역 1년6개월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 재판장은 얼마 후 옷을 벗었습니다. kbs 9시 뉴스를 통하여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의 소비자 피해경고를 보면서도 백검사는 저를 이중으로 기소하였고 "만약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자신이 모두 책임을 진다고 공언하였습니다. " 얼마 후 추적60분을 통하여 치명적인 피해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법무부의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고 한술 더 떠서 이명박 대통령 사건까지 맡게 되고 예견했던(!) 결정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처리(?)로 좌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범죄 증거를 은폐하고 또 항고되는 사건을 기각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즉 호구를 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춘천지검 항소부 차장자리입니다.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모든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권자 자리입니다. 제가 빼앗긴 아버지 재산을 다시 찾으려면 영월지검을 통해야하고 당연히 항소(?)하면 춘천 항소부로 갑니다. 중수부의 수사도 결국은 이 춘천 항소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항소부의 할 일은 기각이었습니다.

그 외 주민철검사, 손태근검사 등의 사건들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기각시켰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 춘천 항소부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2002년 우리 국민을 오존 공기청정기의 폐해로 부터 구해내고 사법부패사조직의 보복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기기 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공기청정기 사건 5년, 아버지 사륜오토바이사건 5년 이렇게 10년 동안 저도 저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6번 정도 불을 보듯 분명한 증거로 정식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불같은 증거를 보고도 단 한 번도 기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2005년 추적 60분을 통하여 전국에 생방송이 된 핵심 증거를 보고도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제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던 번호를 찾아달라고 고소했고, 그 신고했던 번호가 전국에 생방송이 되었는데도 증거불충분이라며 기각한 것입니다.  
음이온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제가 이긴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십년동안 계속된 재판 중에 제가 이긴 사건에서 조차도 고소를 하면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일련의 검사들이 저의 피해를 방치하고 범죄자들의 편을 들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제 편을 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불효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사법변혁이 이루어져야할 당위성이기도 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저는 우리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를 막아 내었습니다. 또 사법변혁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 가야 할 길이기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존 공기청정기는 막아내었지만, 저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피해자들은 어떤 보상도 피해대책도 없이 15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거서류 1: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과 그 판결의 범죄성, 부당함 보고서)**

**둘째**, 아버지의 빼앗긴 땅과 재산을 찾을 수 있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들을 포함하여 십 수 명의 판검사들이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음이온오존 공기청정기 사건>과 <아버지의 4륜 오토바이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났고 서로서로 이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 조국 전 장관께 준비하고 보내지 못한 탄원서 ]**

**(증거서류 2:사륜 오토바이 사건의 전모와 검사, 판사의 고의적 사법농단 범죄)**

세째, 감시와 해킹당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감시, 해킹자들을 조사하여 주시고 그 범행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10년이 넘도록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준공무원(?) 같습니다.

여러 부류(경찰프락치, 법원프락치, 소비자원외 관계기관 연관자)의 정보원 또는 프락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엘지유플러스**는 인터넷 공급업체로서 인터넷 세상, 온라인 세상에 접어든 만 10년 전부터 국가의 기간통신망 업체로 고객과 국민의 통신 비밀을 지켜야 할 기간사업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 사법자들의 청탁에 고객의 개인정보는 물론, 심지어 대담하게 직접 해킹하는 범죄까지도 감행하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의 범죄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개인뿐 아니라 국민의 통신환경 저변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일벌백계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의 엄중함을 각인시켜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증거서류 3: 인터넷 통신업체의 고객 해킹방조와 직접해킹범죄)**

위의 세 사건을 각각 가장 적절한 수사기관으로 배당해 주시길 원하며,

부디 억울하게 판검사들에 의하여 재산을 빼앗긴 노부의 소원을 풀어주시고 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나섰다가 처벌만 받은 저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늘 강건하시어 날마다 승리하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국정을 목표하신대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내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승리영광!!!

2021. 10. 14

탄원인 곽춘규

## <각 사건과 증거서류>

### <증거서류 1 : 사건 1>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과 그 판결의 오류와 범죄성 보고서

### <증거서류 2 : 사건 2> [ 조국 전 장관께 준비하고 보내지 못한 탄원서 ]

사룬 오토바이 사건의 전모와 검사, 판사의 고의적 사법농단 범죄

### <증거서류 3 : 사건 3>

인터넷 통신업체의 고객 해킹방조와 직접해킹범죄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리는 탄원서

탄원인 곽춘규 올림